

귀농·귀촌이 전남 고령화율 낮췄다

지난해 4만7000명 유입...고령화율 1.3%포인트 낮춰 24.3% 농촌 융복합산업화 등 수익 증대...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지난해 4만7000명이 전남에 귀농·귀촌하면서 지역 고령화율을 1.3%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남 향촌 인구는 4년 만에 향도 인구를 앞질렀다.

이같은 내용은 김미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과 김지은 조사역이 18일 발표한 '전남지역 귀농·귀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고령화율은 24.3%로, 귀농·귀촌이 없었다고 가정해 산출한 추정 고령화율(25.6%)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귀농·귀촌이 고령화율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처음으로 자체 분석해 발표했다. 고령화율은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단 귀농·귀촌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전출) 인구와 사망 인구는 산출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지역 고령화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덕분에 증가 폭을 완화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 관련 통계가 본격 집계된 지난 2013년에는 전남 고령화율을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으나 2016년에는 0.5%포인트, 지난해 1.3%포인트 등으로 감소 폭이 증대했다.

계다가 전남지역 귀농·귀촌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해 기준 41.6%로, 각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남 전체 농·어가 30대 이하 비중(12.5%)의 3배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남 귀농·귀촌인의 고령화율은 14.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귀농·귀촌인 고령화율이 반라한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10.0%) 이후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전남에 매년 4만명 정도가 귀농·귀촌·귀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향촌 인구가 4년 만에 향도 인구를 역전했다. 향도 인구는 전남 농촌(읍·면)에서 도시(동·洞)로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전남으로 들어온 향촌 인구는 7만5918명으로, 향도 인구(7만1816명)를 4102명 앞질렀다. 향촌 인구가 향도 인구를 초과한 건 지난 2017년(399명 ↑)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전남 귀농·귀촌인은 전년보다 11.2%(4702명) 많은 4만656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7년부터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10월 전남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김미주 과장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전남 귀농·귀촌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귀농인이 농촌 융복합산업(6차 산업)화 성공 등을 통해 수익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에 참가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17일 영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레드 애로우즈(Red Arrows)와 우정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공군 제공>

영국 하늘에 태극마크 '블랙이글스'

'리아트 에어쇼' 최우수상·인기상 "대한민국 조종사들 자랑스럽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며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공군은 15-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이포드에서 열린 리아트(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RIAT, 이하 리아트)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리아트에는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7개국에서 200여 대 항공기가 참여했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2회 모두 최우수상·인기상을 받았다.

블랙이글스는 주위 측의 공식 초청으로 리아트에 참가해 15일부터 사흘간 매일 1회 25분간 에어쇼를 펼쳤다.

첫날 블랙이글스는 페이포드 하늘에 태극마크를 그리는 태극 기동, 8기의 항공기가 하나의 비행기처럼 일체된 기동을 펼치며 항공기의 전후면을 보여주는 웨지롤(Wedge Roll) 등 고난도 기동

24곡목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찬탄을 끌어냈다고 공군은 전했다.

리아트 행사장을 찾은 주영 재향군인회 장희관 회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항공기로 대한민국 조종사들이 영국에서 멋지게 에어쇼를 펼쳐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블랙이글스는 16일에는 영국 버턴어폰트렌트(Burton upon Trent)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상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추모비행을 펼쳤다. 리아트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영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레드 애로우즈(Red Arrows)와 우정비행을 선보이며 한·영 공군 간 우호를 증진했다.

선상화 공군참모총장은 현장에서 블랙이글스 임무 요원을 격려하며,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어떤 표현을 해도 모자랄 것"이라며, "힘든 환경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기간도 멋지게 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신안 하의 한옥펜션 '인동초의 집' 재개장

25일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객, 하계휴가 방문객 맞아

전남가는 신안 하의면에 있는 한옥펜션 '인동초의 집'을 재정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객과 여름 휴가객 등의 방문 준비를 마쳐 오는 25일 재개장한다.

'인동초의 집'은 신안 하의도 5124㎡ 부지에 2동 6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는 방문객과 하의도 관광객이 숙박시설 부재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주민 건의로 지난 2013년 1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용했고, 최근 2억5000만원의 들어 노후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했다. 오는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년을 맞아 추도행사장을 찾는 방문객과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인동초의 집은 하의면사무소가 있는 응곡선착장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대리마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붉은색 지붕의 한옥 건물로 6

객실 모두 동일한 크기와 구조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 36㎡ 규모다. 객실은 거실과 방 등 2칸으로 구성된 펜션 형태로 주방기구가 비치돼 4인이 이용하는데 적합하다.

교통편의 경우 목포여객터미널에서 하의도까지 차도선이 1일 2회 운행하고, 교량이 연결된 신의면까지는 1일 4회 운행한다. 인근 관광명소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큰바위굴 등이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인동초의 집은 일대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역사 교훈을 얻고 힐링하는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객과 하의도 휴가객에게 인동초의 집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신규확진 더블링 지속...감염 재생산 지수도 상승

광주 580명·전남 547명...전국 2만6299명 확진 12주만에 최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더블링' (2배) 현상이 이어지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치솟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17일 광주 확진자는 모두 5421명으로 하루 평균 774.4명이었다. 그 전주(4~10일) 2279명(하루 평균 325.6명)의 2.4배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월 말 0.77명이었지만 6월 말 1.0으로 오른 뒤 이달 들어서는 9일 현재 1.26, 18일 현재 1.33으로 상승했다.

대규모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발생 연령대는 5월까지 60대 이상 고령자가 20% 안팎으로 가장 높았으나 6월에는 20

대가 20%정도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10대와 20대가 각각 19.1%, 18.1%를 기록했다. 이날도 0시 기준 광주에선 580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 이날 22개 시군에서 547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2만6299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4만342명)보다는 1만4043명 줄었지만, 이는 주말·휴일 진단 검사 수가 감소해 확진자 수도 함께 줄어든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월요일 발표 기준 지난 4월 25일(3만 4361명) 이후 12주 만에 최저치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이동량·여름철 실내활동·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시작된 재확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50세 미만은 3차 접종, 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4차 접종, 고위험군 소아는 기본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임야
삽·니·다**

천평이상, 지분형영, 맹지사질
010-3605-5000

이라크 등 7개국 여행금지 내년 1월까지 연장

필리핀·러시아 등 일부 지역도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가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어 이달 말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와 3개 지역(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필리핀은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바실란·타우타위 군도가 여행 금지 지역이며 러시아에서는 로스

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랴نس키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 해당한다.

벨라루스는 브레스트, 고벨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 여행금지 지역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